

습원의 신의 소리가 들린다



두루미 서식 상황

두루미는 일본 외에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과 중국 동북부에 1,500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홋카이도 동부에서 1년 내내 볼 수 있으며, 두루미 종류로서는 유일하게 일본에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1952년 이후 매년 12월에 서식 개체 수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7년도 조사에서는 1,200마리가 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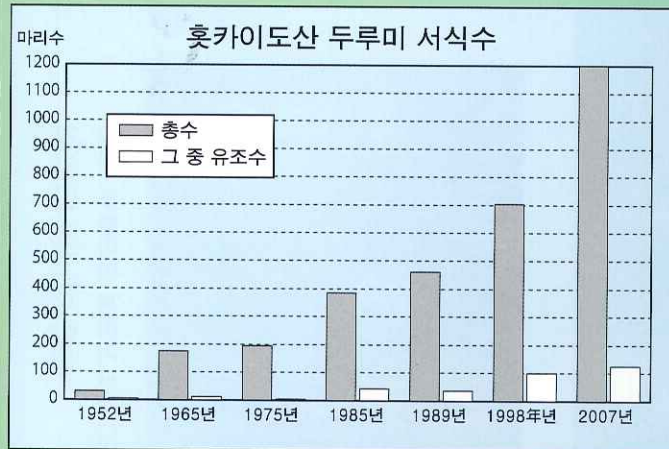
두루미의 사계절

3월 중순이 되면 아칸초와 쓰루이무라의 먹이장에서 각지 습지대로 이동하여 갈대로 둥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둥지가 만들어지면, 길이 10cm 정도의 알을 2개나 1개 낳습니다. 알은 부모가 교대로 품으며, 약 1개월 뒤에 부화합니다.

새끼는 약 100일이면 부모와 같은 크기가 되어 날 수 있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두루미는 먹이장으로 모여 듭니다.





특별천연기념물

두루미

영어명 Red-crowned Crane

학명 *Grus japonensis*

예로부터 전해지는 옛날이야기에도 등장하는 두루미는 에도시대까지 각지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메이지가 되어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 전혀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24년, 10여 마리의 두루미가 구시로 습원에서 확인되었고, 그 후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보호활동이 추진되어, 1952년 국가지정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두루미 자연공원의 연혁

절멸 위기에 처한 두루미를 보호 증식하기 위해 1958년 8월, 구시로시 쓰루오카에 5마리의 두루미를 방목하면서 개원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두루미 생태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암중모색 상태였지만, 10년 후에 자연 부화, 1970년에는 인공 부화에 성공하였고, 그 후 많은 증식을 실시해 왔습니다.

1987년부터 2개년에 걸쳐 관리동 등의 전면 개축을 실시, 렉처 룸·전시실을 설치하는 등, 견학은 물론 학술적 시설로서도 충실해졌습니다. 현재 20마리의 두루미를 방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부터 구시로시 동물원에 이관되어, 양시설이 연계하여 보호증식에 힘쓰고 있습니다.



TANCHO



행복한 만남 체험



조금만 있으면 탄생
(아기 두루미의 부리가 보인다)

안내

입원료

구분	단위	금액	
		일반	단체(15명 이상)
일반(고등학생 이상)	1명 1회당	¥470	¥376
초등학생·중학생	1명 1회당	¥110	¥88

상기 금액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원료 감면에 대해서는 구시로시 동물원(56-2121)에 신청해 주십시오.
■유아는 무료입니다.

개원 시기

(하기) 4월 10일~체육의 날/AM9:00~PM6:00

(동기) 체육의 날 다음 날~4월 9일/AM9:00~PM4:00

■12월 31일~1월 3일은 휴원합니다.

안내도

두루미 공원 ↔ 구시로시 동물원 6km

